

서울대학교 2023년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결과보고서

# 북한 놀이 문화의 변화와 현재 - 여가와 휴일 정책을 중심으로

강정원

안주영

오성희

김미혜

이인경

2024. 1.



서울대학교 2023년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결과보고서

## 북한 놀이 문화의 변화와 현재 - 여가와 휴일 정책을 중심으로

사업기관 :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2024. 1.

###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강정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 주요참여인력

성명	소속	직급
안주영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강사
오성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미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이인경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2023년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결과보고서

# 북한 놀이 문화의 변화와 현재 - 여가와 휴일 정책을 중심으로

강정원

안주영

오성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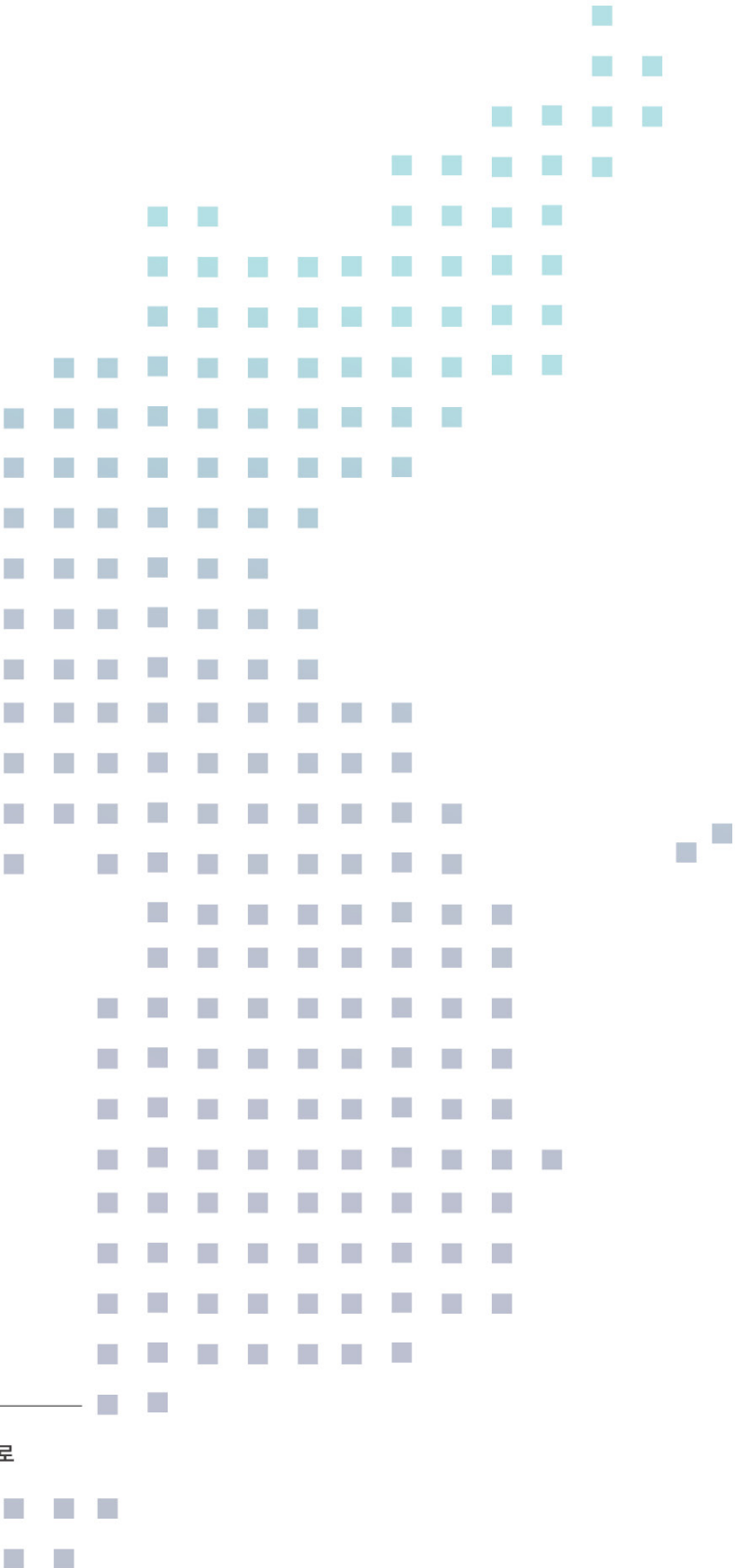
김미혜

이인경

2024. 1.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본 결과보고서는 2023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 목차

I. 서론   강정원	5
II. 북한 휴일과 여가 문화의 변화와 현재   김미혜	7
1. 북한 휴일과 여가 문화의 의미	
2. 여가 문화의 변화와 현재	
III. 북한 명절문화의 시기별 변화 - 『천리마』와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이인경	13
1. 프로파간다적 활자 매체로서의 로동신문과 천리마	
2. 로동신문(1947~2022)에서 나타나는 명절문화	
IV. 북한 명절 의례와 놀이 문화의 변화와 전승 -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을 중심으로   안주영	20
1. 북한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따른 의무화된 국가명절 의례와 놀이	
2. 태양절과 광명성절 의례의 집체성	
3. 전통 민속명절의 전승과 공동체적 집단놀이 (1960년대~)	
V. 북한 어린이놀이의 전승과 놀이 문화의 변화 -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을 중심으로   오성희	25
1. 북한어린이들의 일과와 놀이시간	
2. 북한에서 전승되고 있는 어린이 민속놀이	
3. 미디어 수용으로 인한 놀이 문화의 변화(1990년대~현재)	
4. 북한의 민속놀이 교육의 변화와 현재(1990년대~현재)	
VI. 결론	33
〈참고문헌〉	34

# 1. 서론

강정원(서울대)

본 보고서는 북한의 놀이 문화가 북한 정권 성립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를 여가와 휴가 정책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놀이 문화는 북한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뜻과 값을 지니고 있는 문화로서 이에 대한 본 보고서는 북한과 북한 문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북한 주민도 남한 주민처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사람들과 함께 놀이를 통해 여가와 휴일을 즐기며, 그 놀이 문화도 남한과 상당한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본 보고서는 전달하고자 한다.

놀이 문화는 삶이나 문화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하며 총체적이다. 따라서 하나의 보고서를 통해 그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정한 제한은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본 보고서는 여가와 휴일, 특히 명절을 중심으로 놀이 그 자체와 그와 연관된 생활 방식의 원리와 기능을 설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여가는 사람들의 행위 중에서 쉽 그 자체를 의미하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목적을 최소화한 문화적 행위나 제도를 의미하는데, 노동 시간 분배와 연관된 휴일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놀이는 여가 행위의 한 부분을 의미하며, 시간과 공간, 인간 즉 삼간의 제한 속에서 자유와 평등, 즐거움 그 자체를 추구하는 행위 체계이자 민속 문화이다.

본 보고서는 명절을 중심으로 여가와 놀이를 이해하는 것을 자료 수집과 분석의 중심에 두었다. 북한의 놀이 문화는 사회주의적 국가의 제도적 개입 혹은 통제와 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놀이와 휴일 정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라는 전체주의적 국가에서 작동하는 국가 시스템이 놀이와 휴일, 명절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본 보고서의 출발 문제이다. 아울러 북한의 여가와 휴일 시공간에서 어떤 유형의 놀이가 행해지는 지도 함께 수집하고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북한 문화 일반에 대한 민속인류학적이고 민속문화학적 연구는 이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문화 중에서도 놀이 문화에 대한 인류학 연구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희귀하다. 기존의 북한에 대한 인류학 연구는 주로 북한 사회의 특성을 문화를 통해서 포착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인류학적으로 북한의 민속문화에 대해 수행한 연구는 무속과 놀이에 대한

연구로 시작해서 세시와 종교에 대한 연구까지 와 있지만 여전히 희귀하다. 강정원은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수행한 북한 민속문화 아카이빙 작업에 기반을 두고, 북한의 민속에 관한 책을 펴내면서 북한의 민속문화를 민속세계와 체계, 구조 개념을 동원하여 분석하였고, 북한 민속문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체계나 가치체계의 구조와 지속성을 설명하고자 했다.<sup>1)</sup> 이 외에 권혁희에 의해서 문화정치학적 관점에서 세시의 변화를 고찰하는 시도가 행해지기도 했고,<sup>2)</sup> 안주영은 세시를 국가정책 및 사회변동과 연관시켜서 연구하였는데, 국가를 중요한 주체로 설정하면서 국가와 세시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기존의 세시 연구를 진일보시켰다.<sup>3)</sup>

북한의 민속문화 중에서 놀이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국가 시스템이 붕괴될듯하면서도 붕괴하지 않는 이유를 포착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 북한 주민들의 행위의 선택이 민속세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북한 국가 체계의 불안전성과 전체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일정한 지지를 받아서 북한 국가 세계가 작동하며 유지된다고 생각된다.

놀이는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하는 문화이지만, 제한된 장에서 펼쳐진다. 따라서 놀이를 통해서 전체주의 문화의 일부와 개별 행위자 주체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등의 정도를 제한된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또한 놀이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시스템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전개될 수 있는 갑작스러운 통일을 대비하는 의의도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 민속인류학계에서 여전히 생소한 놀이와 여가 문화에 대한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

1) 강정원(편), 『북한의 민속』, 민속원 2020; 강정원(편), 『북한의 민속』2, 2023; 강정원 외, 『북한의 민속』3, 2023.  
2) 권혁희, 「20세기 북한지역 단오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고찰: 식민지 시기 단오의 양상과 6.25 이후 사회주의적 변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62, 한국민속학회, 2015, 147~177쪽.  
3) 안주영, 「북한의 양력설과 음력설 - 북한의 민속정책과 국가의 '민속명절' 만들기 -」, 『실천민속학연구』 41, 실천민속학회, 2023.

## II. 북한 휴일과 여가 문화의 변화와 현재

김미혜(서울대)

### 1. 북한 휴일과 여가 문화의 의미

#### 1) 북한 휴일과 휴식 정책

북한에서는 휴일을 ‘휴식날’, ‘휴식일’이라 부르고, ‘쉬는 날’로 정의한다. 김일성의 교시대로 근로자들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sup>4)</sup> 휴식에 대한 권리는 <사회주의 헌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이하 로동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리의 하나이다. ‘로동법’ 제1장 제12조에서는 “로동과 휴식을 옹계 결합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을 보호”해야 함을 밝히고,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로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로동과 휴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북한에서 국민은 ‘8시간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정기휴가, 보충휴가’, ‘산전, 산후휴가’에 따라 휴식한다. ‘로동법’ 제3장 제33조에 명시하고 있듯, 근로자는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한다는 ‘8시간로동시간제’를 준수한다. 그리고 ‘공휴일제’로 국가가 지정한 명절날과 일요일을 휴일로 한다. 여기서 명절은 기념일이라고도 하며, 크게 ‘국가적기념일’, ‘국제적기념일’, ‘부문적성격을 띠는 기념일’로 나뉜다.<sup>5)</sup>

‘국가적기념일’은 김일성의 탄생일인 ‘태양절’, 김정일의 탄생일인 ‘광명성절’, ‘조선로동당창건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 ‘조선인민군 창건일’, 광복절,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 등이다. 그리고 설 명절을 비롯한 민속명절을 의미한다. ‘국제적기념일’에는 ‘5.1절’, ‘국제부녀절’, ‘국제아동절’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적성격’을 띠는 기념일이 있다. 그리고 ‘정기휴가’로 14일, ‘보충휴가’로 7일에서 21일을 받고, 여성 근로자는 추가로 산전과 산후에 총 240일의 휴가를 받는다. 2024년(주체 113년) 달력<sup>6)</sup>에 나타난 북한의 공휴일은 18일, 일요일은 52일로 총 70일이다.

4) 『조선대백과사전』, 2005.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DB).

5) 『조선대백과사전』, 2005.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DB).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가 발행한 2024년 달력 참고.

날짜	휴일명	날짜	휴일명
1.1.	양력설	5.1.	국제노동절(국제근로자절)
2.8.	건군절	6.6.	조선소년단 창립절
2.10.	설명절(음력설)	7.27.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정전협정 체결일)
2.16.	광명성절	8.15.	조국해방절(광복절)
2.24.	정월대보름	9.9.	공화국 창건일(정권 창건일)
3.8.	국제부녀절	9.17.	추석
4.4.	청명절	10.10.	조선로동당창건일
4.15.	태양절	11.16.	어머니날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12.27.	사회주의 헌법 제정일(헌법절)

<표 1> 2024년 공휴일

각 명절은 정권에 따라 새로 지정하거나, 공휴일로 전환한 기념일이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태양절’은 1962년에 임시공휴일 지정, 1968년에 정식 공휴일 지정, 1972년 민족 최대 명절로 격상, 1997년에 태양절로 명명되었다. ‘광명성절’은 1975년에 임시공휴일 지정, 1976년에 정식 공휴일로 지정, 1995년에 민족 최대 명절로 격상, 2012년에 광명성절로 제정되었다.<sup>7)</sup> 그리고 1988년에는 추석이, 1989년에는 음력설과 단오가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이후 1991년에 한식이, 2005년에 단오가 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3년부터 정월대보름이, 2012년부터 청명이 휴일로 지정되었다.<sup>8)</sup> 이외에 ‘사회주의 헌법절’은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70년대 지정되었고, ‘조선인민군 창건일’은 1996년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정식 명절로 지정하였다. 기념일은 5, 10년 단위로 꺾이는 정주년을 중요하게 쇠는데, 이는 민속명절과 차이를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 2) 여가 개념과 문화

북한에서 여가는 “겨를이나 짬”<sup>9)</sup>을 의미하고, ‘일이 없는 남는 시간’ 전체를 의미하는 남한의 정의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남한에서 여가(Leisure)의 의미는 “휴식을 겸한 다양한 취미활동이 포함되는 경제 활동 이외의 시간으로,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7) 북한정보포털, 북한 지식사전(2021) 참고. <https://nkinfo.unikorea.go.kr/nkp/knwldg/view/knwldg.do> (2023.11.30.)

8) 안주영, 「북한의 양력설과 음력설-북한의 민속정책과 국가의 ‘민속명절’ 만들기」, 『실천민속학연구』 41, 실천민속학회, 2023, 477쪽.

9) 『조선말대사전(증보판)4』, 사회과학출판사, 2017, 1024쪽.



자유로운 시간, 레저 활동”<sup>10)</sup>을 포함한다. 그리고 여가의 종류는 스포츠(등산·낚시·골프·수영·사이클링·배드민턴 등), 취미생활(여행·사진촬영·음악·영화·그림·요리·식도락 등), 자기충전(바둑·TV시청·경마 등 오락, 독서·명상 등), 사회참여활동(자기충전, 봉사활동·시민단체활동 등)으로 나뉜다. 여가의 목적에는 기분 전환, 스트레스 해소, 자기충전과 자기 계발 등이 있다.

북한에서 여가의 정의는 시간과 범위적 측면에서 좁은 의미의 휴식을 의미하고, 남한에서 여가의 정의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시간과 범위적 측면을 포괄한다. 이에 북한에서는 여가라는 용어보다 맥락에 따라 ‘휴식, 휴양, 휴가, 유희, 오락’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기억 속에 휴식과 휴양은 ‘논다’는 단어로 회상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휴식, 휴양, 휴가, 쉼, 유희, 오락’에 해당하는 다양한 일상적 활동에 주목하여 북한의 여가 문화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법령으로 북한 주민들의 쉼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수령의 교시로 휴양에 대한 물질 지원을 보장한다. 『조선대백과사전』에서는 김일성이 휴양과 관련한 교시를 400여 차례, 김정일이 50차례 이상 내렸다고 적고 있다.<sup>11)</sup> 휴양소는 근로자들이 “문화적인 휴식을 하고, 건강을 증진하면서 휴식의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곳이다. 여기서 ‘문화적 휴식’이란 “정신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휴식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살도록 교양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문화정서교양’을 함양하도록 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2)</sup>

### 3) 여가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

북한에서는 ‘로동법’을 바탕으로 공민의 휴식할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교시를 내린다. 그렇다면 실천적 차원에서 여가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과 태도는 어떠할까? 북한 주민의 쉼 권리는 일상에서 생업 이외에 부업, 다양한 정치적 동원 활동(사회주의 조직 활동)으로 인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인식된다.

북한에서는 지역과 계층, 시대별로 ‘쉼다는 개념’과 여가, 휴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다. 가령 평양과 같이 대도시에서 거주할수록, 상류층일수록, 현대 시기로 올수록, 젊은 연령층일수록 개인의 쉼, 여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계층, 시대적 차이는 특히 ‘여행’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https://encykorea.aks.ac.kr/> (2023.11.30.)

11) 『조선대백과사전』, 2005.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DB).

12) 『조선대백과사전』, 2005.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DB).

다. 예컨대 같은 평양시에서도 출신 성분에 따라 ‘여행’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며,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지방 출신 북한이탈주민은 더 이전에 출생한 평양 출신의 이탈주민보다 ‘여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전자는 사회경제적 차이를 후자는 지역적 차이를 반영한다. 또한 탈북 시기와의 연관성이 있는데, 2010년대 후반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패키지여행과 같은 여행상품에 대한 기억도 갖고 있었다. 북한에서 휴식에 대한 권리는 법령으로 제시되고, 교시로 하달되었지만, 실질적 차원에서의 휴식은 지역과 계층,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명목상 규정에 머무르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 2. 여가 문화의 변화와 현재

고난의 행군, 화폐 개혁과 같은 경제난과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는 북한에서 당과 지도자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감소하도록 하였고, 놀이와 여가, 체육을 포함한 북한 주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1989년 1월 5일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 따르면, 김정일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과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해야함을 강조한다.<sup>13)</sup> 김정일 정권에서 마련한 문화 여가 시설을 살펴보면, 평양시에는 ‘동평양대극장, 청년극장, 룡라도경기장, 양각도축구경기장, 광복거리 교예극장과 학생소년궁전, 청춘거리 경기관’ 등이 조성되었다.

이 담화에서 김정일은 사회적으로 “일상적인 문화정서생활기풍”이 바로 서 있지 않음을 지적한 후, ‘예술소조활동, 노래보급사업, 노래경연, 군중무용, 가정오락회, 읽은 책발표모임, 사랑송모임, 웅변모임, 방송야회, 좌담회, 대담, 견학사업, 민속놀이(씨름, 그네뛰기, 활쏘기, 윷놀이), 주패놀이, 장기놀이’ 등의 “군중 문화 사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해 몸단장(옷차림, 머리단장, 신발단장)을 하고, “사회의 세포”이자 “기층 생활 단위”인 가정에서 문화 정서 생활을 개선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sup>14)</sup> 즉 ‘기층 생활 단위’인 가정에서 주민들이 휴일과 여가 시간에 고상한 문화적 소양을 쌓고,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풀어 사회주의 혁명 과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집권하는 2000년대 후반부터는 더 많은 스포츠, 문화시설이 확충되기 시작했다. 또한 집단뿐 아닌 개인 여가 활동이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인민

13) 『김정일선집(12)(증보판)』, 조련로동당출판사, 2011, 458~480쪽.

14) 『김정일선집(12)(증보판)』, 조련로동당출판사, 2011, 458~480쪽.

야외 빙상장'(2012)을 비롯해 남포시, 원산시 등 전국 곳곳에 롤러스케이트장이 개장하였고,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롤러스케이트장을 갖춘 '능라인민체육공원'(2013)이 개장했다. 이후 '문수물놀이장'(2013), '미림승마구락부'(2013), '마식령 스키장'(2013), '평양시 체육촌'(2017), '강계 스키장(2018)'이 개장했고, '평양체육관', '5월1일경기장', '평양청춘거리체육촌', '백두산지구체육촌'이 리모델링 되었다.<sup>15)</sup> 또한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매체로 여가 시간을 즐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삼엄한 감시, 강화 속에서도 외부 문화와의 접촉이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분류한 북한 여가의 종류는 크게 '놀이와 체육', '문화예술', '관광', '기타 취미생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놀이와 체육'은 인민학교(소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서 휴식과 휴일에 일과를 마치고 하는 기본적인 놀이를 포함한다. '문화예술'은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의 관람과 공연, 연극, 교예 관람, 영화관람, 연주회 감상 등을 포함한다. '관광'은 출장증명서, 여행증명서를 활용하는 휴양, 정양, 요양, 야영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근 생겨나고 있는 위락시설인 '봉사소' 방문과 자연경관 관람이 포함된다. 기타 취미생활에는 백화점, 음식점, 미용실에서 하는 쇼핑과 미용, 가정 내 TV 시청 및 간행물(단행본, 잡지) 독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오락회' 활동,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게임과 여타 활동 등이 포함된다.

'놀이와 체육'에 대한 북한 주민의 기억은 주로 명절에 했던 놀이, 일과 중 틈틈이 했던 여가와 놀이로 구성된다.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의 관람과 공연, 연극, 교예 관람, 영화관람, 연주회 감상 등을 포함하는 문화예술 활동은 다른 놀이나 체육 여가 활동에 비해 문화 기반 시설과 환경 조성이 중요하기에,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을 거치며, 다양한 휴양소와 정양 시설이 마련되었고,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거치며 다양한 스포츠 문화예술 시설이 확충되었다.

기타 취미생활에는 백화점, 음식점, 미용실에서 하는 쇼핑과 미용, 가정 내 TV 시청 및 간행물(단행본, 잡지) 독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오락회' 활동,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게임과 여타 활동이 포함된다. 평양 근처 도시에 거주했던 연구참여자는 백화점과 음식점, 미용실처럼 쇼핑과 미용의 경험이 더러 있었다. 또한 대부분이 TV로 영화를 보거나 만화영화를 시청하였다. '오락회'는 집단으로 하는 여가 생활을 일컫는 것으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장기 자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김정일 선집』에도 서술되었듯, 북한에서 여가는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북한에서는 '로동법'과 교시를 통해 당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여가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에게 주어진 여가 시간은 많지 않아, 북한 주민은 체감상 여가와 쉼에 대해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그

15) 통일부, 『북한이해』, 통일부, 2023.

리고 여가와 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은 시기, 지역, 계층,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북한에서 휴식 활동은 당국의 법령과 수령의 교시로 형성된 물질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북한 주민도 여가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는 못하였지만, 북한 주민은 제도와 실천 사이의 틈새에서 다양한 놀이와 여가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 가령 북한 주민들은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의무 시간과 사회주의 동원 활동 사이사이에 동료들과 여가 활동을 틈틈이 이어 나갔다. 북한 주민의 기억과 구술에서 확인된 실천적 차원의 여가 문화는 '체계 세계' 넘어 존재하는 북한 놀이와 여가의 '민속세계'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북한 사회 아래에서부터의 변화를 추동하는 또 다른 문화잠재력을 내포한다.<sup>16)</sup>

---

16) 강정원 외, 『현대화와 민속문화』, 민속원, 2020; 터너, 빅터, 강대훈 역, 『인간 사회와 상징행위』, 황소걸음, 2018.

### Ⅲ. 북한 명절문화의 시기별 변화

#### - 『천리마』와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이인경(서울대)

#### 1. 프로파간다적 활자 매체로서의 로동신문과 천리마

##### : 로동신문과 천리마의 전반적 특징과 명절문화 서술상의 특징

1947년에 첫 발간된 북한 최고의 기관지이자 일간지인 로동신문과 그와 비슷한 기간의 역사를 가진 월간 단행본 『천리마』는 주지하듯이 체제 선전 및 유지에 기능하는 대표적인 활자 매체이다. 첫 발간으로부터 한 세기에 가까운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 시기 목차와 내용의 구성은 물론 활자·삽화·사진 스타일·편집 등이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국가 원수의 사진 양식 및 배치 방식 등을 통해 선전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 매체는 의례적이다. 본 장에서는 체제 이데올로기적 당위 하의 이상적 명절 문화, 즉 체계 세계의 이상과 그에 따른 서술상의 변화, 시각적 요소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북한의 국내외 정세를 통해 이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상적 명절 문화 서술 속에서 드러나는 실제의 명절 문화를 읽어낼 것이다.

#### 2. 로동신문(1947~2022)에서 나타나는 명절 문화<sup>17)</sup>

##### 1) 건국 초 ~ 정전협상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이자 북한의 대표적 중앙지인<sup>18)</sup> 로동신문은 일간지이다. 시기별로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건국 초 ~ 6.25전쟁 전후의 로동신문에서는 민속 명절에 대한 서술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특정한 사회주의 명절에 대한 선전적 서술이 나타난다. 이는 건국 초의 상황과 더불어 6.25 전쟁 상황이라는 정치적 혼란기라는

17) 이 글은, 비록 두 매체가 서로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을지라도, 로동신문과 『천리마』 사이에는 매체 구조, 서술상의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두 매체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형식을 취한다. 또한, 명절 문화의 변화의 요인을 매체 외적인 요소로 함께 분석하되, 두 매체에 나타난 데이터들을 내적으로 충실히 검토, 분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18) 국립통일교육원, 『2023 북한 이해』, 2023, 206쪽.

역사적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건국 초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통치이념이었고, 소련-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 우방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었던 시기였으며, 비록 자주를 이념으로 하였지만, 우방국에의 의존도가 큰 시기였으며<sup>19)</sup> 김일성 일가의 독재체제가 완성된 시기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체제 공고화가 중요한 국가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체제 공고화가 되지 않은 시기에 여가적 문화나 문화적 행사에 방점을 둘 순서가 아니었을 것이다.<sup>20)21)</sup>

또한, 이 시기에는 명절, 특히 명절 문화 그 자체에 대한 서술보다는 당시 주요 사안이었던 토지 혁명 문제(특히 1946-1947년도), 미국과 UN의 상황, 농업 생산 문제, 우방국과의 친선 등 정치·경제적 사안만이 다루어진다. 6.25 기간 중 새해를 맞을 때는 ‘설’이나 ‘명절’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새해’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새해를 기념하는 글로는, 전장에 있는 군인에게 김일성이 직접 선물을 전달하였다는 보도 정도가 나타났다.

정전협상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사회주의 명절 중심의 서술이 등장한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농업 생산 중심의 기사들이 중점적으로 보도되고, 4.15. 김일성 탄생일에도 간단한 축하 기사 보도로 그친다.<sup>22)</sup> 정전협상 이후에는 4.15. 김일성 탄생일보다 8.15. 조국해방의 날, 4.25. 인민군 창건일, 5.1. 국제노동절(5.1.절), 10.10. 노동당창건절 등이 크게 강조되어 보도되었다.<sup>23)</sup> 이렇게 강조되어 보도되었던 명절은 전후 혼란기에 민족주의적 감정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 계획(1954-1956)과 전후 복구 작업

북한 정부는 1954부터 전후 복구 작업을 위한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 계획을 시행하였는데, 이 시기 즈음하여부터 서술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정전협상 때까지 새해의 문화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1954년 이후로는 일반 사람들이 새해 전야에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새해 당일에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모습이 담긴 사진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한다. 또한, 그 명칭에 있어서는 ‘새해’와 ‘설 명절’,

19) 위의 책, 126쪽.

20) 물론 문화를 통한 프로파간다도 가능하지만, 북한 건국 초기나 정파적 혼란기에 통하는 전략은 아니다.

21) 예컨대, 이 시기에는 현재 가장 성대하게 쇠어지는 사회주의 명절 중 하나인 4.15. 김일성 탄생일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최초로 김일성의 탄생일이 신문상에서 최초로 언급된 것은 1952년 4월 15일로, 신문 1면에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으로부터의 축문에서이다.

22) 이는 특정 시기 이후로 김일성 탄생일 며칠 전부터 꾸준히 4월 15일에 대한 기사가 보도될 뿐 아니라, 신문에서 차지하는 기사의 비중이 물리적·상징적으로 매우 커지는 양상과는 다소 다르다.

23) 더 화려한 디자인·큰 서체의 헤드라인과 신문의 한 면을 크게 차지하는 행사 사진으로서 강조되었다.

‘명절’이라는 표현이 모두 사용되었다.

### 3) 1962년 ~ 1980년: 계획경제의 조정 시행 시기

1962년부터 1980년대 전후로는 북한에서 또 다른 정치·경제적 혼란을 마주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투하던 때였다. 전후 복구 이후 북한은 경제성장을 위해 수차례의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나 스탈린식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그 수행 기조(자력갱생원칙, 중공업우선정책, 동원적 방식)<sup>24)</sup>은 국제 자본 조달 능력의 한계와 대외 경제협력 부진 등의 북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1950년대까지는 경제 개발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으나, 이후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된다.<sup>25)</sup> 즉, 이 시기는 1950년대의 경제성장 이후로 처음 마주하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1967년 전후는 김일성 일가의 ‘독재체제’가 형성되던 정치적 혼란의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로동신문에서는 명절 보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명절 보도의 암흑기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시기에는 로동신문 상에서 ‘명절’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기존에 보도되던 새해·혹은 설<sup>26)</sup>, 4.15. 김일성 탄생일<sup>27)</sup>에 대한 서술도 사라진다. 주변 우방국 지도자와의 교류, 생산에 대한 기사와 정론에 무게가 실렸다. 이는 마치 건국 초의 로동신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예외적으로 1972년 4월 15일 자 신문은 특간호로서 김일성에 대한 기사와 정론 축문들만이 보도된다. 1973년~1980년은 사회주의 명절 보도의 본격적인 약화기라고 할 수 있다. 4.15. 김일성 탄생일, 8.15. 조국해방의 날, 5.1. 국제노동자절 등 사회주의 명절에 대한 언급이 약해진다.

### 4) 1980년 ~ 1989년

1980년에서 1989년 사이에 로동신문 상 명절 문화 서술이 다시 변화하여 여가적 성격이 짙은 명절 문화가 신문상에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이 시기에는 국가최고지도자의 가족적 이미지가 강조되고, 선전적 공식적 행사 차원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민속적 일상성의 차원에서는 만경대유회장 같은 시설을 이용한 여가와 같은 풍요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서술과 보도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 경향성의 배후에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결과물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제

---

24) 위 사이트.

25) 위 사이트.

26) 김일성 시기에는 ‘양력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설’이라는 표현만 사용되었다.

27) 이 시기에는 ‘태양절’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김일성 탄생일로 표현한다.

성장의 가시적 상징으로서의 시설 건설 및 각종 행사가 이 시기에 유치된 것을 단적으로 들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은 대한민국의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직후인 1989년에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했다.<sup>28)</sup>

## 5) 1989년 ~ 2011년

한편, 로동신문에서는 1989년을 기점으로 민속 명절로서의 단오, 추석, 음력설에 대한 보도가 순차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단오에 대한 정보 전달 차원에서 보도가 등장하고, 2.16. 김정일 탄생일 당일이 '2월의 명절'로 보도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김정일이 국가최고지도자의 위치를 계승하기 직전 후계자로서의 입지와 권력을 확보한 시기로서, 이러한 변화는 김정일의 행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적으로 김일성의 말년의 경향성을 계승하여 가족적(아버이로서의 국가원수와 당, 자식으로서의 인민) 이미지를 부각하고, 대규모 행사의 보도로 인한 풍요의 이미지를 부각한다. 김정일은 교시 및 정책으로서 문화·예술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였고, 그 영향으로 감각적인 요소가 두드러지는 공식적 행사를 지향했다. 한편, 양력설과 음력설에는 조직적으로 동원, 확대된 대규모의 민속놀이의 장이 펼쳐졌는데, 이는 김일성 시기 행해졌던 민속놀이의 양상과 비교된다.

김정일 탄생일에 대한 보도가 탄생일 당일만이 아닌, 2월 초부터의 기념 행사 준비 과정에 대한 보도가 나타나며, 1996년은 고난의 행군 시기(1996~1999)로 정치·경제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을 것임에도 신문의 내용이나 서술상의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다.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일부 명절을 쇠었을 정도로 공식적 대규모 행사에 정치적 상징성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 6) 2012년 이후

김정은이 2012년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르면서 이러한 경향성은 계승되어 규모가 큰 공식 행사들이 새로이 생기고, 강조되어 보도되었다. 예컨대, 평양시에서의 새해맞이 야외무대 공연 및 축포 발사 행사 및 제야의 종 행사, 별무리<sup>29)</sup> 행사, 평양 얼음 조각축전<sup>30)</sup>, 태양절 전후로 사탕·과자조각전시회(평양, 2016년 첫 개최)를 여는 등 화

28) KBS뉴스 1989년 7월 20일 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688054> (2024년 1월 7일 검색); 김윤희, 「북한에서 '임수경 열광'과 도전받은 집단주의.」, 『亞細亞研究』 65.1: 217-267, 2022.

29) 하늘에 폭죽을 이용해 글자를 쓰는 것.

30) 2020년 기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체신성, 만경대 구역 인민위원회 등을 비롯한 수십개 단위와 청소년 학생들이 만든 70점의 얼음조각이 출품'되었다고 한다.



려하고 규모가 크며, 여가적 성향과 과학 기술 발전의 가시성이 두드러지는 행사가 증가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사회주의 명절과 민속 명절이 모두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아 보도되는 김정은 시기에 사회주의 명절, 특히 국가지도자의 탄생일은 민속 명절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의 교시를 계승하여 음력설, 단오, 추석, 정월대보름에 대한 기사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단오, 추석, 정월대보름 등의 민속 명절에 대한 언급은 사회주의 명절 때처럼 앞 장에서 대대적으로 배치되기보다는 뒷면의 일부 정도를 차지하는 식이다. 그리고 그 서술 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상성이 강조되는 일화적 서술에 민속 명절에 대한 정치적 서술이 가미되는 방식이다.

한편, 위의 예시들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실내오락실, 사격유희장, 인민야외빙상장 등 일반 인민들을 위한 대규모 여가·놀이 시설이다. 김일성·김정일 시기에 '선군정치'의 일환으로 군중체육활동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졌으나, 김정일 시기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군중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된다.<sup>31)</sup> 그러나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군중체육활동 기조를 체육 대중화·체육 생활화로 계승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한다.

### 3. 천리마(1964~2019<sup>32)</sup>)에서 나타나는 명절 문화

잡지 천리마는 천리마 운동의 기치 하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정보와 내용을 전달하는 종합잡지이다. 당 차원에서는 각계각층의 독자를 상정한<sup>33)</sup>, '재미있는 사진과 건강 상식, 그리고 교양기사를 풍부하게 전달해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인민들에 의해 점심시간이나 여가시간에 널리 읽혀'지는 '월간교육잡지'로 선전된다. 동시에 천리마는 선적 성격이 강한 잡지이며, 정권마다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강조점에 따라 1. 생산과 전투의 이미지 2. 정서·문화·풍요의 이미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어느 한 시기에 한 이미지만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느 시기이든 두 가지의 이미지가 함께 존재했지만, 시기 특성상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이미지 경향성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

(<https://www.news1.kr/photos/view/?3989659>(2024.1.8. 검색)

31) 앞의 책, 244-245쪽.

32) 현재 2019년 이후의 판본을 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모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하므로 부득이하게 서초국립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2019년 판본까지 검토하였다.

33) 위의 책, 309쪽.

## 1) 생산과 전투의 이미지

김일성 정권 시기의 천리마에서는 그 내용과 내용의 구성은 물론 삽화나 사진에서 까지 생산의 이미지, 이를 향한 전투적 이미지가 강조되어 나타났다. 또한, 천리마에서는 시기를 불문하고 국가최고지도자의 사진이나 그림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김일성의 경우 혁명의 수령으로서의 이미지와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이미지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민속 명절은 물론, 사회주의 명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생산과 공업에 관련된 글들과 실용적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4월호에서는 민족의 태양으로서의 김일성에 대한 정론·찬가의 시·축문·생애 등이 잡지의 앞부분에 실리며, 김일성 광장에 헌화를 하는 인파가 가득한 사진이나 만경대로 견학을 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실리는 정도의 명절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로동신문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민속적 일상성을 지닌 명절 문화보다는, 혹은 명절 문화의 민속적 일상성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명절 문화에 대한 프로파간다적 접근이 이루어졌음을 이 시기 천리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일성 정권 때부터 꾸준히 체육발전, 체육대중화와 생활화, 사회주의적 집단체육에 대한 강조와 지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약 1982년부터 기존의 천리마의 내용과 내용 구성이 유지되는 한편 민속 명절이나 민속 풍습에 대한 글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는 로동신문에서 민속 명절에 대한 기사가 실리기 시작한 때보다 약간 더 이른 시기이다. 기존에 없던 ‘조선의 민속’ 코너가 1982년 즈음에 천리마의 구성에 추가되어 현재까지 유지, 계승되고 있으며<sup>34)</sup> 그 서술은 앞서 언급했듯이, 프로파간다적 틀 안에서 서술되며 실제의 민속은 축약되어 나타난다. 이는 북한의 민속놀이의 표준화 작업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표준화 작업은 북한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에 따르면 “민속놀이를 광범위한 군중이 참가해 보다 더 흥겹고 재미나게 하면서도 건전하고 고상하게 계승, 발전시키려는 민족문화유산 정책의 근본 목적과 요구에서 출발한 것”<sup>35)</sup>이며 이 역시 체제 유지 목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4) 해당 코너는 김정은 정권 시기에 <민속풍습>, <민속놀이> 등의 코너로 변형.

35)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71>(2024년 1월 8일 검색.)

## 2) 정서·문화·풍요의 이미지

김정일 집권 시기 초인 199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정서생활’, 문화예술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데, 김정은 정권 시기에도 이러한 기초를 계승한 서술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초의 영향으로 이 시기에 국제부녀절이나 국제아동절 등 사회주의 명절이 속한 달의 천리마에서는 풍요와 인자, 강인함의 이미지가 극대화된 사진들이 실렸다. 고난의 행군 시기(1996년-1999년)에도 로동신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서술상의 큰 변화는 없으며, 오히려 1997년 2월호 17-18쪽 잡지 초입부에 실린 김정일 탄생일 축하문에서 김일성의 기치를 이어나가는 령도자로서의 업적과 행보를 찬양하는 내용만이 등장한다.

## Ⅳ. 북한 명절 의례와 놀이 문화의 변화와 전승 -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을 중심으로

안주영(서울대)

북한에서 명절은 국가적·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날을 선정하여 기념하는 ‘사회주의명절(국가명절)’, 음력의 세시풍속에 따라 전통 명절로 전승해 온 ‘민속명절’로 구분된다.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 북한의 주요한 민속명절은 설(양력설, 음력설), 한식(청명), 단오, 추석의 4대 명절이었으나, 이와 더불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따른 새로운 국가명절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소위 북한의 ‘8대 사회주의명절’이라고 불리는 국가명절은 김정일생일(광명성절, 2.16), 김일성생일(태양절, 4.15), 국제노동절(5.1),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 전승절, 7.27), 해방기념일(8.15), 정권창건일(9.9), 노동당창건일(10.10), 헌법절(12.27)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명절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회주의의 사상과 이념을 명절의 풍속과 놀이에 투영시키고자 하였다. 1950년대-198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명절은 김일성생일을 그 중심에 두고 ‘8대 사회주의명절’로 구성된 명절의 순환 주기가 반복되며 인민의 명절 풍속으로 고착화되어 갔다. 매년 반복되는 사회주의명절의 주기적인 순환 속에서 북한 인민들은 명절의 의례와 놀이에 참여하고 실천할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러한 명절 풍속은 자연스럽게 인민들의 일상에 고착화되어 갔다. 특히 김일성 탄생일과 김정일 탄생일은 북한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1997년부터는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4월 15일)로, 2012년부터는 김정일 생일을 ‘광명성절’(2월 16일)로 개칭하며 명절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고자 했다. 이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에는 각종 축전, 공연, 대집단체조, 군중대회, 체육대회, 전시회, 음악회 등의 각종 문화·체육·예술 활동이 집결되어 북한 전역이 축제화되었고, 이와 더불어 북한 전역에서는 인민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여가활동과 놀이가 이루어져 왔다.

다른 한 편, 북한의 민속명절은 1986년 ‘우리민족제일주의’가 주창되어 민속명절, 민속놀이를 포함한 비물질유산 발굴과 부흥이 적극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 1990년대 이후 체제적·사회적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현재의 김정은 정권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과 변용을 거치며 명절 풍속이 변화되어 왔다. 북한 정권 초기, 주요한 민속명절은 설(양력설, 음력설), 한식(청명), 단오, 추석

을 중심으로 전승되었으나, 현재는 한식과 단오는 중국의 풍습이라 규정하며 제외시키고, 설(양력설, 음력설), 정월대보름, 청명, 추석을 중심으로 전승되며 음력설과 정월대보름의 명절 의례와 놀이를 포함한 명절풍속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명절과 민속명절이 각 시기별로 어떻게 지속과 변용을 거치며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은 총 2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각 지역별, 각 명절별로 의례와 놀이를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북한 명절 풍속의 지속과 변용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북한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따른 의무화된 국가명절 의례와 놀이 : 북한 8대 국가명절(사회주의명절)의 탄생과 명절문화 만들기(1950년대~1980년대)

북한에서는 명절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조선말대사전』을 보면, “첫째, 나라와 민족의 룡성발전에서 매우 의의깊고 경사스러운 날로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축하는 기념일(김일성 생일, 9.9절, 헌법절), 둘째, 사회의 일정한 부문이나 인민경제의 한 부문에서 경축하는 기념일(6.6절, 교육절, 광부절 등), 셋째, 국제로동계급과 세계인민들의 사회계급적 해방과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축하는 기념일(5.1절, 3.8부녀자절), 넷째,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민속적으로 즐겨오는 날(설, 단오, 추석)”이다.<sup>36)</sup> 이러한 기념일들 중 북한에서 가장 중시하는 국가기념일이자 사회주의명절은 소위 북한의 ‘8대 사회주의명절’이라고 불리는 김정일생일(광명성절, 2.16), 김일성생일(태양절, 4.15), 국제노동절(5.1),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 전승절, 7.27), 해방기념일(8.15), 정권창건일(9.9), 노동당창건일(10.10), 헌법절(12.27)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에서 양력설은 일 년 중 첫 번째 명절로서 민속명절이자 사회주의명절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적 명절이다.

1950년대~1980년대의 김일성 시대에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주의명절을 맞이하여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걸맞는 여러 가지 명절 의례와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당시 북한에서 민속명절은 가족과 이웃, 조상을 위한 명절인 것에 반해, 사회주의명절은 사회주의 국가의 사상과 이념을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명절로서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 시기 북한의 각 지역에서 시행된 국가의 각종 행사와 의례는 매년 주기적으로 사회주의명절에 맞춰서 계획되고 수행되었으며, 북한의 인민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

36)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1』,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92.

서 부여된 역할에 맞게 국가명절의 각종 의례를 수행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는 북한의 국민으로서, 인민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였으며, 북한의 인민이면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행하는 국가 의례와 행사는 풍요로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자 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에서 1년의 사회주의명절 중 가장 처음 도래하는 양력설은 민족명절과 사회주의명절의 이중적 정체성을 함의한 명절로 전승되었다.

양력설의 국가 의례를 마치면, 북한 주민들은 2월의 김정일 생일, 4월의 김일성 생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명절은 김일성 일가와 관련되어 북한의 사회적 정통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국가기념일인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을 가장 상위에 두고 구성되어 있다. 2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김일성 생일을 대부분 1년 중 가장 중요한 북한 사회주의명절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주의명절날, 즉 국가가 정한 기념일은 단순한 휴식일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행사나 의례, 놀이를 해야 하는 날로써 ‘개인의 시간’이 아닌 ‘국가의 시간’에 속한 날이었다. 이는 특히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군인들의 경우 극대화되어 나타났는데, 이들은 명절날, 그리고 명절날의 의례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며칠 전, 혹은 몇 달 전부터 정해진 스케줄대로 일하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을 구성해서 그에 맞춰 살아가야 했다.

## 2. 태양절과 광명성절 의례의 집체성

### : 화려한 집단체조와 축제화된 집단놀이 문화 (1960년대~1990년대)

북한에서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은 국가 전체적으로 가장 중시되는 국가명절이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명절은 김일성 생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1975년부터 김정일 생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후,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은 북한의 1년 국가명절의 순환 주기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 가장 중요한 명절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이를 공고히하기 위해 1년의 국가명절 중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명절의례와 행사가 개최되며 북한 전역이 축제화되었다.

이처럼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된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은 ‘태양절’과 ‘광명성절’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부여되었다.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은 학교에서 선물을 주는 날, 특별한 공연이나 행사가 열리는 특별한 명절날로서 1년 중 어린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었다.

이번 북한이탈주민 면담조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집단체조에 직접 참여해본 경험이 있거나 공연을 관람한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집단체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북한 주민들은 주요한 사회주의명절에 행사와 공연, 의례에 참여하는 것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남은 자유시간에 각 지역의 넓은 광장에 가서 무도회를 개최하며 군중무용을 하며 집체적으로 노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며 북한 전역의 주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서 평양시의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평범한 인민들은 명절날 의례나 집단놀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사회주의명절날의 국가 행사나 의례는 지속시키고자 했다. 1990년대 북한에서 대부분의 놀이 문화가 축소되거나 소멸된 반면, 사회주의명절날, 특히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날의 의례나 행사, 집단놀이는 더욱 강조되며 사회주의국가체제의 결속력을 유지시키고자 했다.

### 3. 전통 민속명절의 전승과 공동체적 집단놀이 (1960년대~)

북한에서 민속명절은 4대명절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는데, 양력설(1.1)·음력설(-1.1), 청명(한식, 4.4~4.6), 단오(-5.5), 추석(-8.15)의 위상은 북한 정권의 각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공휴일 지정 역시 각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북한 정권 초기, 주요한 민속명절은 양력설, 한식(청명), 단오, 추석을 중심으로 전승되었으나 이는 북한의 공식적인 휴일로 지정되지 못하였고, 사회주의명절의 전승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후 1989년에 김정일이 ‘우리민족제일주의’에 따라 음력설을 민속명절로 재규정하기 전까지 북한 당국에서는 양력의 새해 첫 민속명절로서 양력설만을 부각시켜 왔다.<sup>37)</sup>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민속명절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국가의례를 끝내고, 조상의례까지 모두 마치면, 가족들이나 친척들, 이웃들이 모여서 명절 음식을 함께 먹고, 콩으로 만든 콩웃으로 윷놀이를 하거나 2인~4인끼리 모여서 주패놀이(카드놀이)를 하며 노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북한 당국에서는 민속명절의 조상의례에 대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허례허식이므로 이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시가 계속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고수해 온 추석의 조상의례는 1980년대까지 지속·전승되어 왔다.

37) 안주영, 「북한의 양력설과 음력설 - 북한의 민속정책과 국가의 ‘민속명절’ 만들기 -」, 『실천민속학연구』 41, 실천민속학회, 2023, 431쪽.

이는 북한 주민들의 조상에 대한 관념, “조상을 잘 모셔야 자손들의 일이 잘된다”는 믿음체계가 여전히 북한의 가족체계 내에서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이 본격화되면서 성묘하러 가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추석날의 조상의례는 간소하게 치르거나 아예 못 지내는 경우도 생겼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집단놀이 문화는 부활될 수 있었다. 북한 각지에서는 명절의 휴식일이 되면 동네의 공터, 아파트 앞 공터 등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밤새 술을 마시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집단적으로 노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웃 주민들이 모여서 집단적·공동체적으로 노는 문화는 북한의 집단주의 생활양식이 이들의 놀이 문화에 자연스럽게 습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1996년~1999년의 ‘고난의 행군’ 시기 최악의 경제난을 지나게 되면서 2000년대에 다시 부활될 수 있었다. 북한 인민의 놀이 문화 역시 조직생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로운 삶과 여가시간은 거의 없는 집단주의적 삶 속에서 북한 인민의 일과 여가시간은 잘 짜여진 집단의 시간 속에서 구성된다.



## V. 북한 어린이놀이의 전승과 놀이 문화의 변화 -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을 중심으로

오성희(서울대)

한반도에는 여러 어린이놀이가 공유되며 지역마다 다양한 이름과 방식을 지니기도 했다. 이는 해방 전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전국의 민속을 조사하던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전국의 놀이를 기록한 『조선의 향토오락(朝鮮의 鄉土娛樂)』(1941)을 통해 그 실상을 그나마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정치·경제 체제에 따라 남·북한의 생활방식이 달라지면서 어린이놀이 또한 일부 소멸되거나 변화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북한 어린이 민속놀이를 비교 연구한 김행심(2014)은 “어린이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우선시 하는 남한의 어린이민속놀이와 달리 북한 어린이민속놀이는 사회주의 사상과 체제를 정책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주입하고 세뇌시키기 위한 것이 우선”이라 지적하였다<sup>38)</sup>. 이러한 지적은 일견 타당해보이지만, 북한의 민속학자들에 의해 정리되고 분류된 문헌자료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며 북한 사람들이 정해진 체제 속에서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바라보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윤보영(2020)은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오랜 시간 교류를 통한 심층면담을 통해 북한정부가 놀이에 담고자 하는 의미와 달리 북한주민이 놀이에서 분출하는 ‘노는 자유’도 존재함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어린이놀이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영향을 준 북한의 체계세계는 물론 이와 얽혀있는 민속세계에서 북한 어린이들의 삶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민속놀이와 관련한 정책 및 교육 자료들, 북한에서 조사·출판한 어린이놀이 관련 문헌자료 및 20명의 북한이탈주민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분단이후 북한에서 어린이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놀이를 유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북한에서 전승되고 있는 민속놀이는 무엇이며, 그 놀이방식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오늘날의 놀이 문화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여전히 지방마다 다양한 이름과 방식의 어린이놀이가 자연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앞서 김행심이 지적하였듯 일부 어린이놀이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을 담고 있기도 하

38) 김행심, 「남북한 어린이 민속놀이의 변화와 지속」, 『통일연구』 18(2),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4, 132쪽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한 ‘놀이’로서 전승되는 것도 있었다. 특히 급속한 도시화를 겪은 남한과 달리 여전히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생활 주변의 물질들을 이용하여 놀이감을 직접 만들며 분단 이전의 놀이방식들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역별로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북한에서 발간한 어린이 놀이관련 문헌에서는 어린이놀이를 표준화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놀이의 방식을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을 통해 북한 어린이놀이 전승의 다양한 현장 사례를 정리하여 제시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 1. 북한어린이들의 일과와 놀이시간

북한의 경우 다섯 번에 걸쳐 의무교육 제도가 변화하였다. 1956년 4년제 초등 의무교육을 시작으로, 1958년에는 7년제 중등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3년)으로 변화하였으며, 1967년에는 9년제 기술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5년)을, 1972년에는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4년+중학교 6년)을 도입하였다. 현재는 2012년 도입한 12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을 실시하고 있다<sup>39)</sup>.

학령기 동안 북한 어린이들의 일상은 학교의 일과에 따라 구성된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놀이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일과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어느 나이 때 가장 많이 노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면담참여자들은 학령기 이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놀 수 있었음을 구술하였다.

한편, 인민학교/소학교 진학 후 어린이의 일과는 대부분 학교 및 조직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에서는 생애과정 동안 조직생활이 일상화 되어 있는데, 이는 정규 교육과정과 함께 시작된다<sup>40)</sup>.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의 인민학교에서는 학급별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배분하여 수업을 한다는 점을 구술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 따르면, 오전반의 경우 수업이 끝난 후에 간혹 동원이 되거나 학습반을 조직해서 숙제를 한다. 학습반은 보통 3-4명으로 구성되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장소를 제공한다. 아이들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숙제를 하고 나면 비로소 나가서 놀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인민학교/소학교 3학년 정도부터 생산 노동에 의무적으로 동원된다. 오후반의 경우에는 오전에 농촌 등에 동

39) 국립통일연구원 연구개발과, 『2023 북한 이해』, 국립통일교육원, 321쪽.

40) 위의 책, 237쪽.

원되어 노동을 제공하고 오후에 등교를 하여 오후 6시에나 하교를 하기 때문에 낮 시간동안에는 놀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구술자들은 주로 저녁시간이나 일요일 또는 명절 휴일에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중학교 진학 후에는 일요일에도 동원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는 집안일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풍족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는 조직생활이 매우 중시되며 아이들의 삶 역시 여러 가지 조직생활로 하루 일과가 구성되기 때문에 놀이의 시간이 대부분 저녁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구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 2. 북한에서 전승되고 있는 어린이 민속놀이

북한에서는 한반도 전체에서 예로부터 전해지던 다양한 민속놀이가 여전히 어린이들을 통해 전승이 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놀이는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living cultural heritage)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전승되고 있는 어린이 민속놀이의 현재를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국가지정 비물질문화유산 목록 중 민속놀이 분야에 ‘연띄우기’, ‘썰매타기’, ‘조선장기’, ‘제기차기’만을 등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41)</sup>. 한편, 어린이 놀이는 다종다양하며, 놀이의 방식도 때와 장소에 따라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유산이다.

북한에서도 『민속놀이(1990)』, 『어린이 민속놀이(1997, 1999)』, 『청소년 오락실(2016)』 등의 단행본을 통해 다양한 어린이 민속놀이의 목록과 방식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만, 표준화 된 방식만 제시할 뿐 전승의 실제 현장을 생생하게 담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본 절에서는 구술을 통해 수집한 어린이 놀이의 종류를 살펴보고, 북한에서 전승되고 있는 어린이 민속놀이의 현재를 논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어린이 민속놀이의 전승과 유희의 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북한의 사회상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놀이의 전승은 다른 민속놀이들보다 더 자연스럽게 전승되며, 강한 전승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어린이놀이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양상은 이들이 놀이를 행위자의 성별에 따라 구분한다는 점이다. 편해문은 놀이에서의 성차 구분은 산업화시대 이전에 형성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라 지적한다<sup>42)</sup>. 말하자면, 산업화시대 이전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이 명확히 구분되어져 있을 당시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대로 어린이

41) 김덕순, 「남북 무형유산 교류 협력의 다자간 협력 틀 모색-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사례-」, 『문화재』 52호, 국립문화재연구원, 2019, 259쪽.

42) 편해문, 『어린이 민속과 놀이문화』, 민속원, 2005, 185쪽.

놀이의 구분에도 반영이 된 것이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성역할에 대해 명확히 구분한다는 점을 어린이놀이 문화의 구분에서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명의 구술자들을 통해 지역 및 시대에 따라 다양한 어린이 놀이의 종류와 방식을 수집할 수 있었다. 어린이 놀이를 성역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역할의 구분이 모호해진 오늘날에는 시대착오적인 분류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연구참여자들이 지닌 성역할 구분에 따라 놀이를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놀이를 ‘남아 놀이’와 ‘여아 놀이’, 그리고 ‘남/여 함께하는 놀이’로 분류하였다. 한편, 남아 놀이와 여아 놀이에 비해 북한에서도 남아 여아 모두 함께하는 놀이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남아 놀이: 외발기(외발이, 쪽발기, 발구-평안북도, 외발빙고-함경북도), 못치기(씨팡-평양, 모다구치기-평양), 말뚝박기(말타기-평양), 팽이치기, 딱지치기, 땅따먹기, 자치기(메뚜기 치기-함경북도), 장기치기(알까기), 따별치기(따빨), 다마치기(다말이 굴리기-함경남도) 등.
- 여아 놀이: 인형놀이, 공기놀이(공개-양강도, 자갈잡이-평양, 자갈치기-평안남도, 조알채기, 짜개받기, 짜구잡기, 살구, 공개놀이, 공기줏기, 콩주어먹기, 조갈놀이, 백알공기 등), 실뜨기, 소꿉놀이(세감지-함경북도, 떡고방놀이-평안남도) 등.
- 남/여 함께하는 놀이: 숨바꼭질(숨기놀이-평양, 숨길내기-청진), 말타기(말뚝박기), 스케이트, 오자미놀이(오치-함경남도, 오사리 던지기-함경북도, 옥사라-양강도), 술래잡기(따라잡기-평양, 딸굴래미-양강도), 줄넘기(뽕줄), 망차기(돌까기-평안남도 남포, 차개놀이(차갯돌)-함경남도, 남자오리 여자오리-양강도, 망돌놀이-함경북도, 잠자리/왕 신하-함경북도 무산, 망까기(평양)), 수건돌리기, 꼬리잡기, 제기차기, 오자미차기(오살차기-함경북도), 다리세기(다리장사-함경북도), 하늘-땅-바다 놀이(평양), 단심줄놀이, 꼬니, 목찌빠(꾸찌파-함경북도), 사방치기(맷돌치기-평양), 비석치기(맷돌던지기, 돌까기-평안남도, 돌차기-함경남도), 땅따먹기, 군사놀이(전쟁놀이), 썰매타기, 스케이트 타기, 연날리기, 딱지치기, 주패놀이(사사끼, 흥식(흥스)-함경북도), 신발숨기기 놀이(아바이), 끝말잇기, 보물찾기 등

어린이놀이는 자연적 시간 및 공간과 더불어 그 곳에서 획득 할 수 있는 자연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43)</sup>. 다시 말해, 자연적 공간에서 얻어지는 놀잇감을 통해 유희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급격한 도시화를 이룬 오늘날 한국에서는 놀이공간이 대부분 실내나 놀이터에 한정되어 있지만, 옛 농촌지역에서 아이들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놀잇감을 획득하고는 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여전히 자연의 공간에서 자연물을 놀잇감 삼아 유희하고 있다는 점을 구술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기놀이, 팽이, 고무줄, 썰매, 딱지, 연, 제기, 오자미 등 다양한

43) 장장식,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어린이놀이의 보존과 전승 방향」, 『한국민속학』 49, 한국민속학회, 2009, 383쪽.

놀잇감을 직접 만들어 놀았던 기억을 구술하였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오자미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놀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역마다 또는 시대마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만들었고 명칭도 지역별로 상이하였다. 북한에서 오자미는 오사리(평양, 함경북도), 오치(함경남도), 옥사라(양강도) 등으로 불리며, 모래나 보리, 옥수수, 메주콩 등을 넣어 만들어진다.

오자미를 활용한 놀이의 방법으로는 제기차기처럼 발로 툇기는 방식, 수건돌리기와 방식이 비슷한 오치돌리기, 그리고 피구와 비슷한 방식의 놀이가 구술되었다. 발로 툇기는 방식은 제기처럼 발목 안쪽의 복숭아 뼈로 차기도 하지만 여아들의 경우 발등으로 툇기기도 한다고 구술되었다<sup>44)</sup>. 피구와 비슷한 방식의 경우, 선을 두 개(또는 네모나게) 그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팀은 선 안에 들어가고, 진 팀은 선 밖 양쪽에 서서 오자미를 던져 상대팀을 맞춘다. 오자미를 맞은 사람은 죽은 것으로 간주하며 밖으로 나오고, 남은 사람을 다 맞추면 이기는 놀이이다. 한편 안에 있는 팀이 상대팀이 던진 오자미를 잡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방식에서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오자미놀이는 과거 남한지역에서도 유희되었던 방식이지만 현재는 자연스러운 전승이 단절된 실정이다.

자연물 외에도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 생활용품 및 공업용품들 역시 아이들의 놀잇감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또한 특정한 놀이 중에는 지역별 또는 세대별 다양한 방식이 구술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망차기가 있다. 북한에서 발간한 『어린이 민속놀이』(1999)에 의하면, 망차기는 땅위에 일정한 형식의 도형을 그려놓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돌을 한발로 차면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sup>45)</sup>. 북한에서는 망차기를 망까기/망돌까기(평양), 망차기(평안북도), 맏돌맞히기(함경북도), 차개놀이/망차개.망돌놀이(함경남도) 등으로 불리며, 놀이 방식에 따라 잠자리 망차기(함경북도, 평양), 남자오리/여자오리(양강도), 왕-신하(함경북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한에서도 장마당이 활성화 되면서 어린이들이 직접 놀잇감을 만들어 활용하던 방식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장마당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도 상점에서 뽕줄이나 공깃돌, 제기 등을 판매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8.3직매점<sup>46)</sup>이라는 곳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유년시절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놀잇감을 구입하기 보다는 직접 만들어 놀았다고 구술하였다.

썰매는 특히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대표적인 놀잇감인데, 평양에서는 일찍부터 백

44) 연구참여자 20 면담조사.

45) 리재선·리경숙, 앞의 책, 32쪽.

46) 북한에서는 8.3인민소비품창조운동(1984)을 시작으로 기관이나 기업소, 협동단체 등에서 폐기물과 폐설물을 활용하여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된 제품은 8.3인민소비품이라 칭하며, 지역마다 설치된 8.3인민소비품 직매점에서 판매 및 유통된다. (최은주, 「북한의 '순환경제' 정책과 시사점」, 『세종브리프』 2021-4, (재)세종연구소, 2021, 7쪽. 참고.)

화점이나 견재 상점 등에서 구매하여 놀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는 장마당에서 썰매를 비롯한 여러 놀이 도구를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듯 북한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연물을 활용하여 직접 놀잇감을 만들어 노는 방식에서 기성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어린이 놀이에는 유희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와 사회주의 사상이 반영되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이 반영된 대표적인 어린이놀이는 고무줄놀이이다. 북한의 동요는 대부분 항일 빨치산을 찬양하는 혁명가가 주를 이루며, 이러한 내용들이 학교의 교과에서 교육되고 있다. 북한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노래들을 자연스레 놀이에 접목하였다.

### 3. 미디어 수용으로 인한 놀이 문화의 변화(1990년대~현재)

21세기 골목문화의 소멸과 더불어 놀이공간이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대되는 환경의 변화는 어린이놀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sup>47)</sup>. 한국보다 보편화되는 양상이 더디고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북한에서도 미디어의 수용으로 인하여 놀이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의 변화로 인하여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어 놀기 보다는 실내, 나아가서는 사이버 공간으로 놀이의 공간이 이동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콘솔게임이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학령기를 지낸 연구참여자들은 과외 숙제를 하기 위해 조직된 학습반에서 함께 숙제를 하기도 하고 콘솔게임을 하며 놀기도 하였음을 구술하였다. 콘솔게임 중에는 컨드라트 레전(콘트라), 슈퍼마리오를 많이 했던 것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구술하였다. 또한 게임기가 있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시청각미디어인 CD플레이어는 2000년대 초반 보급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부터 한국드라마를 포함하여 가정에서의 영화 시청이 증가했다. 특히 북한에서는 디즈니 CDR이 영어 교육용으로 보급이 되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백설공주, 라퐁젤, 인어공주, 아이스에이지 등을 시청하였다고 구술하였다.

컴퓨터 게임의 경우 평양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는 인터넷을 활용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양의 PC방에는 여러 컴퓨터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평양의 아이들은 노트북을 들고 모여 케이블로 연결하여 함께 게임을 하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또한 광장 같은 곳에 노트북을 들고 모여 e-스포츠처럼 내기를 걸고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

47) 장장식, 앞의 논문, 379쪽.

한다.

오랜 시간 자연의 시간과 공간에서 행위된 민속의 어린이놀이는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유희될 기회가 점차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북한의 아이들은 아직 육체적 놀이와 디지털 미디어 양자 사이에서 선택이 가능한 환경을 여전히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4. 북한의 민속놀이 교육의 변화와 현재(1990년대~현재)

북한에서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 민속놀이 전승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1980년대 후반 김정일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한 이후 북한에서는 민속놀이 교육에 대한 강조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1989년 담화에서 어린이들이 활쏘기, 연띄우기, 썰매타기, 줄넘기, 솜박꼭질 등의 민속놀이를 많이 하도록 해야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전승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sup>48)</sup>.

이와 같은 민속놀이 전승에 대한 강조는 1989년에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 축전에서 널뛰기나 그네뛰기와 같은 민속놀이 경기를 진행하거나, 매년 추석 즈음에 개최되는 ‘대황소상 전국민속씨름대회’ 등과 같이 세시명절에 맞추어 기획된 행사를 통해 민속놀이를 축제화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민속놀이를 포함하는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어린이 민속놀이’ 방법을 자세히 담은 단행본들이 출간되었는데, 1997년 출판된 『어린이민속놀이』(박문영 저)와 1999년 출판된 동일한 제목의 책(리재선·리경숙 저)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교육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교양원》 2007년 2호에서는 “민속놀이를 통한 지능개발방법”이라는 기사를 통해 민속놀이교육이 어린이들의 지능을 높여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과정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속놀이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3년 출판된 북한의 교과서에서 민속놀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교육된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발간된 교과서와 교수용참고서 중 조선력사 초급중학교 3학년, 도화공작 소학교 5학년, 음악무용 소학교 1학년 및 체육 소학교 1학년, 초급중학교 1학년,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에서는 ‘민속놀이’를 직접 명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을 받는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민속놀이에 대해 교육받은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지는 않다. 북한에서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생산노동을 위해 동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어도 모두 수업에서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8) 「온 사회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9년 1월 5일」, 『김정일선집』 9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318-319쪽.

나아가 수업의 내용이 주로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구술자들 중에는 교육과정에서 민속놀이에 대한 강조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속놀이를 이론이 아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과목은 체육이다. 구술자들은 씨름, 널뛰기 등을 체육시간에 배웠던 기억을 들려주었다. 한편, 씨름이나 널뛰기 등이 체육교과에 포함된 것은 북한의 교육과정에서 ‘민속놀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기 이전부터로 추정된다. 한 연구참여자는 1980년대에 체육수업에서 씨름이나 널뛰기를 가르쳤지만, 이것을 ‘민속놀이’라 명시하며 가르치지 않았다고 구술하였다. 다만, 씨름과 널뛰기가 체력단련에 어떠한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김정일의 교시를 인용하여 교육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처럼 북한에서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속놀이 전승의 한계를 문화유산보호제도 및 교육 제도를 통해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최근 여러 교과들에 민속놀이를 직접 명시한 내용을 포함시키며 교육하고자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교과 내용들은 교과 전체 내용 중 매우 협소한 부분을 차지하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기억에는 민속놀이 교육이 크게 체감되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놀이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일이 아닌 자유로운 행위라는 점에서 북한의 교육에서 강조하는 민속놀이와 자연스럽게 전승되는 어린이놀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 VI. 결론

지금까지 북한의 여가와 놀이 문화의 변화에 대해 북한의 여가와 공휴일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한 사회주의명절과 민속명절을 포함하여 각종 국가기념일에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휴일을 보냈는지, 어떠한 놀이와 의례를 행하며 명절을 보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여가와 놀이에 대한 방대한 문헌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담조사와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민속세계와 명절문화, 여가와 놀이 문화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자료를 기초로 하여 향후 북한의 여가와 놀이 문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I. 서론 || 강정원

강정원(편), 『북한의 민속』, 민속원, 2020.

\_\_\_\_\_, 『북한의 민속』2, 민속원, 2023.

강정원 외, 『북한의 민속』3, 민속원, 2023.

권혁희, 「20세기 북한지역 단오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고찰: 식민지 시기 단오의 양상과 6.25 이후 사회주의적 변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62, 한국민속학회, 2015, 147~177쪽.

안주영, 「북한의 양력설과 음력설 - 북한의 민속정책과 국가의 ‘민속명절’ 만들기 -」, 『실천민속학연구』 41, 실천민속학회, 2023.

### II. 북한 휴일과 여가 문화의 변화와 현재 || 김미혜

강정원·권혁희·배영동·오창현·이진교·임근혜, 『현대화와 민속문화』, 민속원, 2020.

르페브르, H,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 서울: 기파랑, 2005.

터너, 빅터, 강대훈 역, 『인간 사회와 상징행위』, 황소걸음, 2018.

『김정일선집(12)(증보판)』, 조런로동당출판사, 2011.

『조선대백과사전』, 2005.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DB).

『조선말대사전(증보판)3』, 사회과학출판사, 2007.

『조선말대사전(증보판)4』, 사회과학출판사, 2017, 1024쪽.

『조선대백과사전(24)』, 백과사전출판사, 2001.

나영일·현주·안지호·신영진·진현주·성제훈, 「북한의 체육 및 여가활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 -단천 지역을 중심으로」, 『체육사학회지』, 18권(2호), 한국체육사학회, 2013, 111~126쪽.

안주영, 「북한의 양력설과 음력설-북한의 민속정책과 국가의 ‘민속명절’ 만들기」, 『실천민속학연구』 41, 실천민속학회, 2023, 423~470쪽.

통일부, 『북한이해』, 통일부. 20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2024년 달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법무부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북한정보포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Ⅲ. 북한 명절문화의 시기별 변화 ‖ 이인경

『로동신문』, 1947~2022, 로동신문사.

『천리마』, 1964~2019, 천리마사.

가.

국립통일교육원, 『2023 북한 이해』, 2023..

권헌익, 『극장국가북한:카리스마권력은어떻게세습되는가』, 창비, 2013.

엘리아데, 미르치아, 심재중 역, 『영원회귀의 신화: 원형과 반복』, 이학사, 2009.

강정원, 「현대화와 민속문화, 민속세계 -한국종교와 민속종교를 중심으로-」,

『韓國民俗學』 Vol.71: 7-45, 한국민속학회, 2020.

곽승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통일문제연구』,

제9권 2., 평화문제연구소, 1997.

김윤희, 「북한에서 ‘임수경 열광’과 도전받은 집단주의.」, 『亞細亞研究』 65.1:

217-267, 2022.

김종수, 「북한 ‘속도전청년돌격대’에 관한연구」, 『동아연구』, 동아연구소, 2007.

김진환, 「천리마운동: 건설의 신화와 재현의 정치」,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

2016.

정영철, 「1970년대 대중운동과 북한사회」, 『현대북한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2003.

정현수, 「김정일 체제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7권 2.,

평화문제연구소, 1995.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setId=-1&prevPage=0&prevLimit=&itemId=kn&types=&synonym=off&chinessChar=on&levelId=kn\\_027\\_0080\\_0030\\_0010&position=-1](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setId=-1&prevPage=0&prevLimit=&itemId=kn&types=&synonym=off&chinessChar=on&levelId=kn_027_0080_0030_0010&position=-1)

(2024년 1월 7일 검색)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688054>

(2024년 1월 7일 검색)

<https://web.archive.org/web/20141011043542/http://www.kplibrary.com/nkterm/read.aspx?num=778>

(2024년 1월 8일 검색)

<https://www.news1.kr/photos/view/?3989659>

(2024.1.8. 검색)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71>

(2024년 1월 8일 검색.)

#### IV. 북한 명절 의례와 놀이 문화의 변화와 전승 || 안주영

『로동신문』

강지연(탈북민), 「눈물로 쓴 탈북민 手記: 남과 북이 함께 쇠는 민족최대의 명절」,  
『월간 북한』, 2014년 9월호, 2014.

권혁희,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의 변화와 특성」, 『통일정책연구』, 28(1),  
통일연구원, 2019.

권혁희, 「이데올로기, 조상의례, 술판과 주패놀이: 현대 북한 명절문화의 수행적  
전환에 관한 소고」, 『북한의 민속』, 민속원, 2020.

김두환, 「金日成 父子 세습체제에 치중한 북한의 민속놀이」, 『北韓』, 1992년 10월호,  
1992.

김성모 외, 『조선의 집단체조』, 평양: 조선평양외국문출판사, 2002쪽.

김정보, 기광서, 이신철,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 (주)웅진닷컴, 2004.

김양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나타난 정책적 함의」, 『한국예술연구』  
5,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2.

김종원, 「북한의 기념일 지정과 변화의 정치적 통제: 권력정당성, 개인우상화,

- 민족전통」, 『북한연구학회보』 23(2), 북한연구학회, 2019.
- 남영호, 「소련과 북한의 사례로 보는 사회주의 민속정책」, 『북한의 민속』, 민속원, 2020.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1』,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92.
- 박운규, 「北韓의 歲時風俗에 關한 研究 : 명절과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99.
- 송승환,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국통일』, 평양출판사, 2004.
- 안주영, 「북한의 양력설과 음력설 - 북한의 민속정책과 국가의 ‘민속명절’ 만들기 -」, 『실천민속학연구』 41, 실천민속학회, 2023.
- 와다, 하루끼, 『북한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2012.
- 전영선, 「북한의 대집단체조예술공연 아리랑의 정치사회적·문화예술적 의미」, 『중소연구』 제26권 제2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2.
- 정유진, 「북한의 4대 명절의 하나인 북한의 신정 설, 어떻게 보내는가」, 『北韓』, 1993년 1월호, 1993.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13.
- 최우석 기자, 「북한 집단체조공연 연습장에 대소변 악취가 진동하는 까닭: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월간조선』 뉴스룸, 2018. 9. 22.
- [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5103&Newsnumb=2018095103](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5103&Newsnumb=2018095103)

## V. 북한 어린이놀이의 전승과 놀이 문화의 변화 || 오성희

- 오철룡, “비물질문화유산보호와 인류문화의 지속적발전”, 『로동신문』, 2013.3.24. 4면.
- 김덕순, 「남북 무형유산 교류 협력의 다자간 협력 틀 모색-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사례-」, 『문화재』 52호, 국립문화재연구원, 2019, 252-269쪽.
- 김명자, 「북한의 민속놀이」, 『한국문화연구』 4,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1, 271-293쪽.

- 김행심, 「남북한 어린이 민속놀이의 변화와 지속」, 『통일연구』 18(2),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4, 111-137쪽.
- 무라야마 지준 저, 박전열 역, 『朝鮮의 郷土娛樂』, 집문당, 1992.
- 송성남·전가일·정준희·편해문, 『놀이 뒤집어 보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2
- 요한 하위징아, 이종인 역, 『호모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연암서가, 2010.
- 윤보영, 「북한주민의 놀이에 담겨 있는 이념과 실재」, 『통일인문학』, 82,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5-61쪽.
- 이지순·최선경,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통일연구원, 2002.
- 장장식,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어린이놀이의 보존과 전승 방향」, 『한국민속학』 49, 한국민속학회, 2009, 379-413쪽.
- 주성하,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 북돋움, 2016
- 최은주, 「북한의 ‘순환경제’정책과 시사점」, 『세종브리프』 2021-4, (재)세종연구소, 2021.
- 편해문, 『어린이 민속과 놀이문화』, 민속원, 2005.
- 김경순·조정원, 『청소년오락실』, 금성청년출판사, 2016.
- 김정일, 『김정일선집』 9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박문영, 『어린이 민속놀이』, 예술교육출판사, 1997.
- 리미옥 외, 『도화공작: 소학교. 4학년』, 교육도서출판사, 2016.
- 리미옥 외, 『도화공작: 소학교. 5학년』, 교육도서출판사, 2016.
- 리재선·리경숙, 『어린이 민속놀이』, 교육도서출판사, 1999.
- 리혜경, 「민속놀이를 통한 지능개발방법」, 《교양원》 2007년 2호, 교육신문사, 2007.
- 안영옥 외, 『음악무용교수안: 소학교. 제1학년』, 교육도서출판사, 2013.
- 장계남 외, 『음악: 인민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1990.
- 제갈명 외, 『조선력사: 초급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2015.
- 한윤도외, 『체육교수안: 소학교. 제 1학년』, 교육도서출판사, 20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